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42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회장 후보들 “내가 체육인 위한 책임자”

내년 1월 선거 앞두고 5명 출사표
이기흥 회장 현직 프리미엄 업고 출마
강신욱, 윤강로, 유준상 ‘개혁’ 도전장
장영달 전 의원도 출마, 경쟁 가열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말말말’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체육계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MOU”

“성남 탄천링크 폭행···10월 접수 사건 아직 조사 중”

“조사관 13명, 신고 건수는 67건, 1인 당 평균 5건 소화해야···”

“조속한 처리도 좋지만 농치는 부분 없이 가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체육회장 후보들 “내가 체육인 위한 책임자”

체육계 ‘대선’인 대한체육회장 선거, 불꽃이 튜다.

체육인들의 변화 욕구가 그만큼 크다. 체육인들의 자존심과 체육단체의 자율성 회복 문제도 걸려 있다. 대한체육회가 재정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 체육의 구심점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해 내는 역할 등 할 일은 많다.

1일 현재 대권을 위해 출사표를 낸 후보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등 4명이다. 12월말 후보자 정식 등록이 이뤄지고, 선거는 내년 1월 18일 열린다. 하지만 본격적인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다.

<한겨레>는 4명의 후보에게 체육 개혁의 주요 과제인 학생 선수 주말대회 전면화,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스포츠 인권, 체육인 일자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주말대회, 강신욱 “공론화 등 필요”

한국 엘리트스포츠는 그동안 학교가 대표선수 배출의 수원지 구실을 하면서 선수를 충원했다. 국가는 체육특기자 제도 등 상급학교 진학 특례를 통해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과 은퇴 후 사회 낙오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의 주중대회 금지와 주말대회 전면화를 2021년까지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주말대회를 하려다보니 장소 대관의 문제, 선수 휴식의 문제, 비용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강신욱 교수는 “지도자 휴식권, 장소, 비용, 종목, 진로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급진적인 변화에는 크고 작은 저항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스포츠의 여러 분야에 있는 당사자들과 공론화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시설 대관 어려움, 선수·지도자 부담 증가,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윤강로 원장은 “운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도 소수를 위한 길 열어주고 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유준상 회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찬성 쪽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

다음 장 계속

■체육회-KOC 분리, 윤강로 “조건부 찬성”

대한체육회는 1920년 창립됐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대한체육회 산하로 194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하면서 결성됐다. 이후 분리, 통합, 완전통합 식으로 현재 하나가 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KOC를 포괄하면서 예산이나 조직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성적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 분리해서 KOC는 올림픽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에 주력하고,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등을 강화하면서 승부지상주의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강로 원장은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는 체육행정의 전문화 및 바람직한 생활체육 문화 뿌리내림을 위해 도입 가능한 전향적 방안”이라며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두 기관 분리 시 전문 체육 인력 분산, 전체 예산 감소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체육행정 전반에 소요될 예산을 먼저 확충하고, 생활체육이 고도화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연구한 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흥 회장은 분리보다는 흠어져 있는 체육담당 부처의 통합을 강조했고, 강신욱 교수와 유준상 회장은 분리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체육회장 후보 4인의 주요 이슈 입장				
이슈/후보	이기흥	강신욱	윤강로	유준상
학생선수 전면적 주말 대회	유보적 시설 대관 어려움, 선수·지도자 부담, 비용 증대: 연구용역 통해 효과성, 개선택 마련	유보적 지도자휴식권, 장소, 비용, 종목, 진로 특성 등 고려 요소: 이해 관계자 공론화 필요	유보적 운동전념 학생에 좋은 결정 아님, 유럽도 소수 위한 길 열어: 타당성 조사 필요	찬성 학습권 보장 필요. 경기 실적 중심 진학 시스템도 내신, 출결, 면접 등 반영
체육회-KOC 분리	반대 분리보다 대통합 필요. 체육 담당 정부 부처 13개로 중복: 정책 거버넌스 위해 국가체육위원회 설치 제안	유보적 체육인의 의견 수렴 우선, 정치적 결정에는 반대: 체육인의 자주성 바탕, 공론의 장에서 의견 수렴 필요	조건부 찬성 냉전시대 체육, 방만 경영 탈피 위해 필요: 정부-체육회-전문가 3자 티에프 구성 실행안 도출	유보적 단순한 이분법 논리 반대. 전문가 의견 반영 신중하게 다양한 검토 필요
스포츠 인권 대책	교육이 해법 체육인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절실: 2023년 건립 체육인재개발원 전문연수 시설 활용	교육이 해법 체육인 명예, 윤리, 자부심 고취:시스템은 중분,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실행력 제고	교육이 해법 교육, 폭력 신고 핫라인 개설, 지도자 처우 개선: 미국 등의 유사 법령 등 참조	교육이 해법 지도자, 선수 성과위주 단기계약, 불안정한 생활기반 문제: 맞춤형 교육
체육인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스포츠, 정책 개발과 투자, 지원 필요: 체육단체 공동 스포츠 마케팅 자회사 설립	생활체육 강화 한국형 '골든 플랜', 학교-전문-생활 체육 연계로 활동 일상화:체육인 고용안전 재단 설립	학교, 생활체육 강화 체육회 정책 견인 아이디어뱅크 구상: 7대 일자리 확충 방안 제시	규정개정과 지원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심화 확장, 효율성 있는 국가 예산과 지원: 선진국형 후생방안 필요

다음 장 계속

■선수인권, 유준상 “교육 최우선 과제”

정부는 8월 스포츠 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스포츠 선수 인권보호의 독립적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4명의 후보는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준상 회장은 “미투와 폭력 등의 사건은 인권보호 시스템의 문제이기 보다는 ‘인성’과 ‘교육부족’으로 인한 인재다.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성과를 강조하고, 단기계약 등 불안정한 고용관행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신욱 교수는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은 돼 있다. 교육과 스포츠 문화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강로 원장은 “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기흥 회장은 “2023년 건립예정인 체육인재개발원을 전문 연수원으로 활용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이기흥 “마케팅 자회사 연구”

체육인 일자리 문제는 체육 전문성과 인력의 활용, 체육인의 인간 존엄성 등과 관계가 있다. 새 체육회장이 가장 고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네 후보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기흥 회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비대면 스포츠 등 새로운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 및 종목, 시도단체와의 공동 마케팅 사업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자회사’ 설립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강신욱 교수는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연계로 체육 활동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육인 고용안전 재단 설립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강로 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생활체육 확산이 원천적인 동력이다. 국민의 체력 향상, 생활체육 확산을 위한 예산 확충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단순 예산 집행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뱅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준상 회장은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심화, 효율성 있는 국가 예산과 지원, 선진국형 후생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 4선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장영달 전 의원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kimck@hanicokr

<한겨레> 질의 내용과 답변문 전문은 아래 자료 출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장영달(73) 우석대학교 명예총장이 제44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영달 대한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이 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 후보자와 이회택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아주일보 양규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단상에 오른 장 후보자는 "제44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체육인들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며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가 100년을 맞이했다.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세계의 스포츠 강국들을 제치고 세계 톱10에 진입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발판이 됐다. 이 모든 것은 자랑스러운 체육인들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체육은 위기가 찾아왔다. 현재 대한체육회 집행부는 체육계를 분열시켰다"며 "근간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은 괴리되어 있으며, 학교에서의 정규 체육 수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가지 체육 혁신 정책 및 공약을 내세웠다. 5가지 공약은 △체육의 국가정책 중심화 △인권이 보장된 스포츠 민주주의 △제대로 일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복지 국가 선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및 남북체육 교류 정례화다.

발언 이후 질의가 이어졌다. 장 후보자는 두 번째 공약(인권이 보장된 스포츠 민주주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현재 스포츠계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올해 인권과 관련한 큰 사건들이 많았지만, 대한체육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 형세다. 스포츠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한다.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인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시 대한체육회장이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벌금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일축했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자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3주기다. 장 후보자는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15년 지냈고, 현재는 몽양기념관 명예 관장을 맡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여운형 선생은 조선체육회(現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과 조선올림픽위원회(現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기자회견 말미에 장 후보자는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다면 조선체육회 초대 회장을 지낸 몽양 여운형 선생의 의지를 받들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자는 대한배구협회장, 생활체육전국배구협회장,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 등 스포츠 행정가로 활약했고, 국회의원(4선),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이동훈의 100°C] 스포츠윤리센터, '음침마속' 위한 칼 두들겨야

지난 8월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가 출범했다. 고(故) 최숙현 사건으로 스포츠계가 떠들썩한 지 두 달 만이다. 출범식 달째에서 넉 달째로 넘어가던 지난달 30일 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을 비롯해 이숙진 센터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담·신고 △피해자 지원 상호협력 관계 구축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상담·의료·법률 등 지원 △체육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엄정 조사와 사후 관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일 국내 한 스포츠연예전문지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건은 성남시 탄천링크 폭행 사건이다. 10월에 신고한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됐다는 것과 '성남시청 감독이 낙하산 인사인 센터 실장에게 손을 썼다'는 것이 보도의 골자다.

찬물이 확 끼얹어진 센터는 1일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은 10월에 신고·접수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기사에 소문이라고 언급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낙하산 인사라 지적된 실장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배포했다.

그렇다면 센터의 현 상황은 어떨까. 기자의 취재 결과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관은 13명이고, 이들을 전·현직 경찰로 이루어진 전담팀 15명이 돕는다. 현재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67건이다. 조사관 1인이 평균 5건을 소화해야 한다.

성남시 탄천링크 폭행 사건은 수도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강원권과 남부권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강원도 체육학교 폭행 사건의 신고·접수일은 추석 연휴 이전인 9월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 장 계속

해당 건을 신고한 A씨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관들이 강원도까지 내려와서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부분과 조사관분들이 다녀간 이후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는 부분 등은 치가 떨리지만, 조사관들께서 행정 조치를 주시고 있다고 하니 잘 판단해서 선수 자격 박탈 등의 처분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짚어야 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우리도 조속한 처리를 원하지만, 급하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여주시에는 조선 시대 전통 도검을 제작하는 장인인 이은철 도검장이 살고 있다. 그는 투박한 잡쇠 덩어리를 달궈서 망치로 두들긴다. 접고 또 접어 단단하고 질긴 쇠로 만든다. 십여 차례 꺾어 접는다.

끝이 아니다. 칼날의 형태가 드러나면 수십 번 두들기고 갈고 닦아서 모양을 잡는다. 이번에는 담금질 차례다. 칼날을 고온에서 달궈다가, 찬물에서 식힌다.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칼날이 부서져 버린다. 그는 칼을 만들면서 "급하면 안 된다. 칼을 더욱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듬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도 마찬가지다. 칼날 제작으로 치면 아직 제작 중이다. 자칫 급하면 부서지듯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 보인다. 두들기고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담가야 한다. 이제 출범 녀 달째다. 모두의 우려와 달리 읍참마속(泣斬馬謖)을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이 연마돼야 하지 않을까.

ldhlive@ajunews.com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